

## 中國 重電機器 輸出促進團 4천만\$ 수출상담 - 상해, 북경 등 순회상담, 업무협약 체결도 -

韓國電機工業振興會가 韓國電力公社 후원하에 파견한 中國 중전기기 수출촉진단이 지난 6월 25日 부터 7月 5日 까지 홍콩, 광주, 상해, 대련, 북경 등 5개 지역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 상담액 4천만\$, 상담회사 및 상담건수만도 66개사, 460건에 이르는 상담 성과를 올리고 돌아왔다.

이번 수출촉진단은 진홍희 任寅柱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LG產電(株) 등 9개사에서 총 14명이 파견됐는데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력의 절대 부족으로 발전설비와 이에 따른 송배전 설비를 확충하고 있어 대규모 중전기기 수요가 전망되는 시점에서 파견됐다는 점에서 바이어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또한, 상담도 내실있게 진행돼 기대이상의 상담성적을 올렸는데 아직 중전기기 분야의 경우 미개척지인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전기기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에 대한 현장 확인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중국 방문기간 동안에는 수출상담 이외에도 중국전력공업부 및 華東電力集團公司등 전기공업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중장기 전원개발계획을 조사하고 전력기자재 수급 현황 및 구매계획을 파악한 것을 비롯 향후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한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다.

특히, 중국 기계공업부 산하 機電分會를 방문하여 정보자료 교환과 중전업계 인적교류 및 기술협력 등에 상호 공동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업계의 중국시장 진출 및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업무협약 체결 내용: 별첨)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이번 시장개척 활동을 계기로 우리 업계의 국제화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수출 유망지역에 대한 수출촉진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수출촉진단 파견성과**

**1. 중전기기의 중국 진출 전망**

- 중국의 중전기기 산업은 사회주의 국가 계획경제 체제하에 전문성을 중심으로 품목별 국가주도형 집단육성 방식으로 발전시켜 품목에 따라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중전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품목별로 수력, 화력발전, 송·배전분야의 기술수준이 높아 선진국 기술수준이나, 일부 전력전자 및 첨단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열세임.
- 최근 중국은 1988년 개방·개혁이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력공업도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발전속도에 비해 전력공업의 발전속도가 낮아 만성적 전력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전력공업의 발전속도도 GNP와 맞춰나가는 수준으로 잡고 있음.
- '96년부터 제9차 5개년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간중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새로운 자원개발에 역점을 두어 “중장기 전원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양자강 삼협댐 건설”을 고려한 전국적인 연계를 검토중에 있음. (\* 중장기 전원개발계획과 삼협댐건설계획은 추후 별도 게재 예정임)
- 중국은 2000년대에 이르면 발전설비용량 3억 KW, 발전용량 1억4천만KW로 5년동안 매년 발전설비 2천만 KW정도씩 증설할 계획임. 그러나 이런 계획을 달성키 위해서는 20%정도의 해외조달자금이 필요함. 따라서 발전소건설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 및 합작등의 방법을 환영하고 있음.
- 중국의 중전기기 유통구조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영회사가 있으므로 지역의 특수성 및 산업구조, 면밀한 시장조사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적극 진출을 해야 할 것임.

**2. 수출 상담 실적**

지역	상담업체수	상담건수	금액(천불)	비고
홍콩	24	148	14,070	
상해	14	98	5,600	
대련	13	95	6,250	
북경	15	105	12,900	
계	66	462	38,820	

- 이번 방문기간중 수출상담회를 통한 거래 상담실적은 참가업체의 품목에 따라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합작투자 가능성 타진 및 대리점 개설 등이 많았으며 특히 상담에 임한 중국 중전기 MAKER의 대부분이 무순, 심양지역에 있어 향후 동북 3성쪽의 시장진출이 희망적임.
- 차단기, 개폐기, 릴레이 등 품목에 대하여 많은 상담이 있었으며 애자, 피뢰기 등 우리측이 약한 부문에 대한 진출도 희망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품목은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열위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음.

### 3. 향후 추진 방향

- 최근 중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 따라 발전량 부족으로 광주 및 남부 연안지역 등 발전량 확충을 위하여 중국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우리업체가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중국의 전문기술인력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
- 우리업체의 중국과의 합작사업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수시로 사전 합작사업 희망업체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MARKETING 활동을 전개하고 수출을 증대.
- 중국의 중전기 관련 유관기관 또는 KOTRA 해외 현지투자 업체로 부터 수출·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우리 중전기 산업이 내수위주에서 수출산업으로 육성발전 되도록 우리 중전업체에 정확하고 빠른 자료제공.
- 해외 중전기 시장에서 우리 중전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시장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 비교우위산업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양화 또는 노동집약적인 중전기 품목의 중국 진출을 적극 권장하여 동남아 시장확보 거점으로 활용
- 중국 기계공업부 산하 기전분회와 업무협조 약정체결을 계기로 중국 중전산업의 각종 정보입수, 사절단 교환방문 등을 통하여 양국의 교역확대 및 중국시장 진출 시도

## 협 력 비 망 록

한국전기공업진흥회(KOEMA)와 중국국제상회기전행업상회(CCOIC-MCC)는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아래와 같은 협의에 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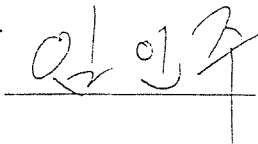
1. 한중 양국 기전 업체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양국 기전산업의 무역, 협력 촉진 및 양국 기전업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회는 비망록 서명일로 부터 우호 협력관계를 맺기로 결정한다.
2. 양회는 경제·무역·기술·시장·투자 등에 있어 정보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고 상호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3. 양회는 공동 노력하여 양국 전기업체가 무역·기술교류·과학기술성과 상품화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촉진한다.
4. 양회는 일방의 관련 인사나 대표단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시 상호 협조하고 필요한 편리를 제공한다.
5. 양회는 국제전람회, 회의개최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하고 상대방이 주관하는 국제전람회, 심포지엄, 교류회 등을 지지하고 참가한다.
6. 기타 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양회가 합의하여 상호 협력 한다.
7. 본 협력비망록은 중국어, 한국어 각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대표의 서명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1995년 7월 3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상근 부회장

임 인 주



중국국제상회기전행업상회

상무 부회장

필 가 봉

